마당과 지중(智衆)

구연상(숙명여대)

[미디어에 길들여진 대중은 모둠살이(사회)를 바꿔 나가기커녕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마당의 한가운데 떼 지어 모인 지중(智衆)은 민중처럼 저항(抵抗)하고 대중처럼 놀이하면서 시민(市民)의 권리로써 제도를 고쳐 나가려 한다.]

⇒ 우리가 지중의 탄생 과정과 그들의 역할(해야 할 일)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지중이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마당이 무엇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 다음, 우리는 지중이 직접 출현했던 '촛불모임'의 전개과정 및 성과 그리고 그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더 다음에, 우리는 촛불모임의 핵심 이슈였던 '광우병 진실'과 '한미 FTA'에 대한 지식문제가 어떻게 지중을 태어나게 했는지를 파헤쳐 보아야 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중의 탄생의 태반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중의 미래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1. 마당으로서의 광장

가) 마당(광장)의 역사와 그 기능

광장(廣場), 그것은 지중(智衆)의 정체성을 이루는 뿌리이다. 광장의 성격은 한국의 전통과 잘 들어맞을 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켜 줄 등대이자 방향타 그리고 항법장치가 될 것이다.

광장은 오늘날 비로소 생겨난 게 아니다. 한국에서 **광장의 역사**는 오래고도 깊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그 장소가 대학으로부터 거리로, 즉 광장으로 옮겨감으로써 대단원의 막

을 내릴 수 있었고, 1960년대 학생봉기도 거리의 시민들이 '광장의 참여자'로 바뀜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으며, 1910년대 만세운동 또한 '길거리 광장'을 용감히 누비며 다녔던 백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동학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우리가 "광장"을 "너른 마당"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전통 곳곳에서 마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당은 폭로의 장이기도 하지만, 꿈을 펴 보이는 **희망의 장**이기도 하며, 끝내 현실의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삶의 현실 전체를 주제로 한 '인생 극장'이다. 삶의 희로애락은 말할 것도 없고, 우연한 행위로부터 빚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인간의 모습, 그러한 비운을 달래는 과정들, 힘 있는 자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허망함, 또는 가난과 곤궁에 처한 사람들의 절규 등을 말해 준다.

나) 극장과 마당

마당은 결코 영어의 "**씨어터(theatre**/극장)"가 아니다. 이 잉글리쉬 말은, 구경하는 곳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쎄아트론(theatron)"에서 유래했다. **극장(劇場)**은 대개 공연을 위한 무대공간이나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극장은 설계되고, 배우는 섭외되고, 관객은 손님이 된다. 비극 작품들을 공연했던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은 원형으로 된 합창대석과 반원형 계단꼴로 이루어진 관객석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고, 배우와 관객은 함께 공연할 수 없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관객과 배우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 배우들은 합창대석 뒤에 높이 마련된 단위에 서서 대사를 말했다. 음향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로마 극장조차도 무대와 객석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심지어 둥근 천장을 씌워 평지에서조차 객석을 계단식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관객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다) 마당극: 마당의 재현

마당의 힘이 되살아난 것은 **1978년 서울대학교 연극반**이 "허생전"이라는 공연을 "마당극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면서부터이다. 물론 마당극 자체는 **김지하**의 "진오귀"(1960년대 중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당극은 대학 연극반들이 대중에게 민주정치의 이

념과 민족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공연의 주 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이 마당극에는 서구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한데 뒤섞여 있다. 한국사회가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그리고 광주항쟁과 독재타도 그리고 반미의식 등의 정치의식이 성장하면서 마당극은 서구의 진보적 리얼리즘과 전통적 민속예술(탈춤, 판소리)이 한데 비벼지게 되었고, 대중의 공감을 자아내면서 대학 축제나 시위 의식으로 퍼져나갔다.

2. 촛불모임의 정체성

가) 촛불모임의 전개 과정

-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 **5월 2일** 금요일 청계광장에 처음 **촛불소녀**가 등장했다.
- 촛불세대는 누구인가?
- 5월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6월 10일 화요일, 시민들은 **기적과도 같은 비폭력 시위**를 이루어 냈다.
- 6월 25일 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 6월 30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 봉헌

나) 촛불모임의 정체와 한국사회의 현실

- "**시위(示威)**", "**집회(集會)**", "**문화제(文化祭)**", "**촛불-제(祭)**"
- "**촛불모임**"은 위 요소가 한데 뭉뚱그려진, 그러나 매우 느슨하게 뭉뚱그려진 모임이다. 그곳에는 외침도 있고, 놀이도 있고, 바람이나 기대도 있으며, 청원도 있고 협박도 있다. '촛불모임'은 촛불을 든 사람이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요구하거나 어떤 놀이든 놀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나눠 가진 모임이다. 이 모임은 약관이나 정관 또는 계약서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아니 입회나 탈퇴와 같은 형식이 전혀 없는 "무형식의 모임"이다.
- 촛불모임은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닮아가기(mimesis)**"와 "**네메시스(nemesis/인과응보)**"

> **공자(孔子) : "소강 사회(小康社會)"**

> **승자의 독주와 패자의 적대감**

3. 광우병(狂牛病)과 지중(智衆)의 탄생:

가)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촛불모임의 정신

- **민주주의(民主主義)**
- **자본주의**

⇒ **다수의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시대정신**

그렇다면 마당의 성격을 띤 **촛불모임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합의(合意)의 정신**

나) 광우병과 지중의 탄생

- **지중(智衆):** 중민(中民)과 달리 계급에 상관없이 활동지만, "민족"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민중(民衆)을 닮았고, 저마다의 모래알 같은 고유성(固有性)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중(大衆)이다. 지중은 일종의 익명성을 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계속 숨어서만 활동하려 하지는 않는다. 지중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변혁 이념을 추종하기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진실을 따르려 한다. 즉 거짓말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저항하면서, 그것을 개인적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회적인 단체나 집단 안에서 신념을 갖고 고발하거나 고쳐나가려 한다.

> **지중(智衆)**은 중민(中民)처럼 **저마다의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識見)이나 지식(知識)**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지중(智衆)**은 **자율성에 기초하여 진실을 추구**할 뿐 아니라, **지적이든 도덕적이든 헤게모니(꼭뒤)를 쥐려고 하지 않는다.**

- **수사학적 지중:** "수신(修身)"과 "설득(說得)"의 능력을 갖춘 지중

> 창조적 지성인(知性人) ⇔ "기회주의적 지식인(知識人)

> 진실 추구

보기) **콤 켈러허의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 앎쇠들의 활약 덕분에 한국 사회는 당면한 과학적 문제들이나 국제 통상의 문제들을 보다 진실되게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지난 황우석 사태 때 보여준 앎쇠들의 활동이 그러했고, 진행 중인 광우병 사태와 관련하여 각계의 앎쇠들이 펼쳐 보인 역량 또한 그러하다.

> **지중**은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식들의 진위를 조사**하고, 그로써 **가장 올바른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

> **광우병 사례 소개: 광우병 진실**은 **수사학적 지중들의 활동**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4. 앎쇠의 해야 할 일: 퇴마(退魔)

> 동학농민전쟁 _ 외세에 의한 진압 ⇒ 식민통치

> 4·19 학생운동_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이끌어냈지만 장면 정부의 무능 때문에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짐

> 5·18 광주민주화항쟁 _ 내란으로 치달아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고립됨으로써 군부독재 아래에서 매도당함

> 6·10 민주항쟁 _ 호헌철폐를 이루어 냈지만 양김의 정치야욕 때문에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말았다.

> 2002 효순미선 촛불집회 _ 대의민주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로 심판함(참여정부)

> 2004년 탄핵반대촛불 _ 총선으로 심판함

> 쇠고기 촛불집회 _ 심판의 기회가 너무 멀다.

가) 극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은 **권위에 호소하는 태도**를 말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미국 정부의 말이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문서들이다. 한국 정부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의존**해 모든 진실을 덮은 채 자신들의 말을 "진리"로 주장한다. 한국 정부의 말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은 한국 정부를 넘어 미국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 이 '미국 정부'가 바로 극장의 우상이다.

나) 악마 쫓아내기

- "촛불문화제"는 악을 물리치기 위한 퇴마 의식을 거행하는 제의(祭儀)라고 할 수 있다.

> 악을 물리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슬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갈고 닦을 뿐 아니라 그 마음 자체도 투명하게 맑히는 일에 다름 아니다.

> 퇴마, 즉 **'악당 물리치기'**는 **주체성의 회복, 또는 자치성의 확립 또는** 넓은 의미에서 서로의 본래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

> 퇴마의 첫 번째 조건: 지중(智衆), 즉 앎쇠의 출현

> **앎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활동하는 지성**

다) 수사학적 정신

촛불마당이 드러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성취하지는 못한 "합의 정신"은 어떤 정신을 말하는가?

>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아고라(광장)와 소유권 분쟁이 자주 일어났던 법정 그리고 공적 업무를 관련된 회의가 끊임없이 벌어졌던 민회

> 고대 그리스의 입법자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 나면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 고대 그리스 민중정치제도에서는 토론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누군가 입법자에게 그의 주장의 근거를 물으면 입법자는 질문자가 자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 했다.

> 촛불모임을 통해 비로소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되었다. 그것은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적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수사학적 정신**", 즉 "설득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정신"이다!

> '수사학적 정신'의 특성

1. 사람이 되라 > 속이지 말라
2. 공과 사를 구분하라 > 공정한 양심을 발휘하라
3. 청중의 뜻(영혼)과 마음(정서)를 이해하라 > 소통의 정신을 키워라
4.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라 >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라.
5.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알맞은 문체를 사용하라 > 들어주는 사람을 존중하라
6. 진실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 진실을 가리지 말라